



## 그 여름



내가 어릴 적, 여름은 원래 밖으로 나가는 계절이었다. 덥다고 해서 문을 닫지 않았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입구엔 얇은 천 모기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창틀에 딱 맞게 고정된 방충망이 아니라, 위쪽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커튼 같은 것이었다. 찻집에 찻집 불어오던 바람이 그 천을 건드리면, 모기장은 파도처럼 일렁였고 그 움직임 너머로 열린 집 안 풍경이 잠깐씩 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더우면 더울수록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벤치 위엔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았고, 어른들은 여름밤바람을 타며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땀에 젖은 채 배드민턴을 치고 숨바꼭질을 했다. 바람이 부는 산으로,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그늘이 좋은 다리 밑으로, 바다가 있는 먼 친척집으로 여름은 언제나 떠나는 계절이었고, 움직이는 계절이었고, 신나는 계절이었다.

국민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다. 아빠가 냉방 기능이 있는 선풍기를 하나 사 오셨다. 물인가 얼음을 넣으면 바람이 더 시원해진다는 기계였다. 에어컨이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없던 시절이고, 냉풍기라는 단어도 생소했을 때다. 팬 뒤쪽에 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나왔다. 나는 그 시원한 바람이 그렇게 좋았다. 지금의 에어컨처럼 센 바람은 아니었지만, 웬지 아빠가 나만을 위해 뭔가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준 것만 같아 뿌듯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학교 교실에 선풍기가 처음 설치된 것도 그즈음이다. 양쪽 벽면에 큰 프로펠러형 선풍기가 두 대쯤 달려 있었는데, 자리가 북북북이었다. 바람이 닿는 위

치에 앉은 친구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풀거렸고, 나는 바람과는 동떨어진 맨 앞에서 땀을 흘리기 바빴다. 그 선풍기 소리는 선생님 목소리보다 존재감이 확실했다. 돌아보면 참 더웠을 텐데, 우리는 에어컨 없이도 공부했고, 밥도 먹었고, 잘도 잤다. 어쩌면 그뻘 더웠던 걸까, 아니면 더위라는 감각이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았던 걸까.

여름이면 성당에서 복장 지도가 내려왔다. 반바지는 안 되고, 민소매도 안 되고, 맨발에 슬리퍼도 피하라고 했다. 하느님 앞에서는 단정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한여름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미션이었다. 그때 내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7부 바지가 하나 있었고, 나는 여름 내내 그 바지만 주야장천 입고 다녔다. 정말 더웠지만, 입지 말란다고 반바지를 꿇듯이 안 입고, 슬리퍼 대신 양말에 운동화를 쟁겨 신었던 그때의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다. '지키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내 순수함이 자꾸 웃음을 자아낸다.

요즘 여름은 너무 조용하다. 다들 더위를 피해 실내로 숨고, 창문을 닫고, 약속도 줄인다. 더워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여름이 점점 기억 없는 계절이 되어간다. 돌아보면 예전 여름은 늘 땀에 젖어 있었고, 누군가와 부딪히고 웃고 속상해하며 만들어진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여름이 다가오면 계획을 세웠고 그 더위 속에서 놀았고 싸웠고, 어떤 날은 서로의 부채가 되어주기도 했다. 뜨거웠지만 살아 있었다. 지금은 너무 차갑고 조용해서, 오히려 계절을 잃은 느낌이다. 여름 내내 에어컨 바람을 쐬며 최대한 활동을 자제했던 기억만 가득하다. 바깥의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지만, 그 안에서 뛰놀던 사람들의 움직임은 점점 사라진다.

기록을 보면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에도 35도를 넘는 날은 있었다. 열대야도 있었고, 한낮의 아스팔트는 그때도 뜨거웠다. 하지만 지금의 여름은 같은 숫자여도 훨씬 더 숨 막히게 느껴진다. 차가 많아졌고, 도시가 뻘뻘해졌고, 모든 건물과 차량에 에어컨이 돌아간다. 그 바람들이 실외로 열기를 뿜어내고, 실외기는 담벼락마다 붙어 공기 흐름을 막는다. 복사열이 쌓인 도로 위, 밀폐된 차 안, 환기되지 않는 골목. 기온은 비슷해도 체감은 다르다. 계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여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나는 혼자 있을 때 종종 선풍기를 튼다. 에어컨보다는 덜 시원하지만 바람이 살아 있다는 감각이 좋다. 어릴 적 여름을 가장 좋아하던 나, 아빠가 사준 신식 선풍기의 둔탁한 회전음,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찬물로 샤워를 하고 선풍기 앞에 앉아 수박을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던 시절, 교실에서 선풍기 바람이 닿기를 바라던 나날들. 그런 조각들이 지금도 선풍기 바람 속에 어렴풋이 살아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덥지 않은 날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권한다. 덥다고 투덜대기도 하지만, 종종 그 앞에 앉아 TV를 보거나 과일을 먹는 모습을 보면 문득 그 여름의 내가 겹쳐 보인다. 언젠가 아이들도 기억하겠지. 여름이면 엄마가 선풍기를 틀어주었다고. 그 미지근한 바람이 엄마를 닮았다고.....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01 무료 홈 스테이징	05 무료 마켓 분석 & 감정
02 무료 홈 인스펙션	06 무료 집수리 & 페인트
03 무료 터마이트 리포트	07 무료 거라지 세일 싸인
04 무료 홈 워런티	08 무료 광고

**레드 포인트 회사  
전체 탑 에이전트!**  
Nationwide top 5% agent

아이비의 특별함으로  
최고의 결과를 드립니다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